

# 국내 最古 인쇄사 보진재

## 파주출판단지서 제2의 飛翔

1912년 창업, 4대째 가업전수, 90년간 단일업종 고수... 이런 회사가 인쇄업종에도 있다. 바로 보진재다.

보진재(대표이사 김정선)는 지난 8월 14일 경기도 파주출판단지 내 파주신공장에서 창립 90주년 및 신공장준공 기념 행사를 가졌다. 파주신공장은 한마디로 한국 최고(最古)의 인쇄 회사답게 시설과 공장규모 등 모든 면에서 업계 최고(最高)의 위용을 자랑한다.



◆ 김정선 사장

1912년 8월 김진환선생이 종로1가 관철동에서 보진재석판인쇄소라는 상호로 창립된 이 회사는 1930년에 김낙훈 2대 사장이 취임하였고 1953년에 김준기 3대 사장이 취임하였으며 1992년에 현재의 김정선 4대 사장이 취임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가업 4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진재'라는 상호는 창업주인 김진환선생이 자신이 흠모하는 북송(北宋) 4대 서예가이며 남종화의 대표로 불리던 미불의 서재(書齋)이름인 "보진재(寶晉齋)"를 회사명으로 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보진재는 최고(最古)의 인쇄업체답게 인쇄와 관련된 각종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1924년에 민간업체 최초로 오프셋인쇄기를 도입했고 1933년에는 크리스마스철 인쇄를 시작했다. 이어 1935년에는 오프셋자동인쇄기를 최초로 도입했으며 역시 국내 최초로 사진원색 분해를 시작했다. 1965년에는 한국 최초로 베트남에 교과서를 인쇄하여 수출하였고 1967년에는 일본에 활판조판물을 수출하기도 했다. 1996년에는 코스닥에 상장해 자사의 이미지 제고는 물론 인쇄업계의 위상을 제고시켰다.

보진재는 현재 150명의 숙련된 기술자들이 전산조판 및 출력, 원색분해, 사진제판, 운전 및 매엽 오프셋인쇄, 무선철 및 중철 제본에 이르기까지 인쇄과정 전반에 걸쳐 일관작업이 가능한 종합인쇄



◆ 기념식에 참석한 각계 인사들이 테이프를 컷팅하고 있다.

전문회사로 성경 등 박엽지 인쇄물 수출 1위 기업이기도 하다.

주요 생산품으로는 잡지, 참고서, 학습지, 단행본, 만화, 교과서 등 출판 책자류와 전단, DM, 카탈로그 등 상업 광고물 및 성경, 찬송가, 사전등 박엽지 인쇄물이 있다. 또한 지난 1961년 출판사 등록을 필한 후 중고등학교 2종교과서, 이공계 대학교재, 한국전통문화 관련 도서 등 약270종을 출판한 바 있다.

‘제2의 창업’이나 다름없는 파주출판단지 내의 보진재는 우리나라 최고의 회사답게 지었고 시설도 최첨단으로 갖췄다.

파주신공장을 살펴보자. 대지면적 4,308평 총건평 3,667평의 지하1층 지상2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369평의 외부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1층은 매엽지창고 매엽인쇄실 운전인쇄실 제본실 파지고로 구성되어있고 2층에는 사무실과 제판실 전산실 통신실 식당으로 꾸몄다. 별관1층에는 디지털인쇄실이, 별관 2층에는 출판부와 제도실이 들어서 있다.

파주신공장은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생

산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있다. 종이를 사용하는 부서는 모두 1층에 공정 순서에 따라 위치시킴으로서 공장내의 물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자동화에 대비하고 있다. 전기실, 냉각수실, 통신실 등은 건물 한가운데 2층에 위치시켜 배관과 배선 길이를 최소화하고, 홍수에 대비하는 한편 운전인쇄실, 제본실 등 소음이 심한 곳은 천장에 특수 흡음 판넬을 사용하고, 지붕은 높이제한 10m 이내에서 경사를 최소화하기 위해 멤브레인을 사용했다.

공장 1층 바닥은 수평 오차를 40m당 17mm 이내로 유지하고 크랙을 방지하기 위해 줄눈 레일 공법을 사용하였으며 레진물탈로 마감했다. 연약한 지반을 고려하여 15m 파일 760개를 박고, 건물하중을 줄이기 위해 물 쓰는 곳 이외에는 경량칸막이(내화석고보드)를 주로 사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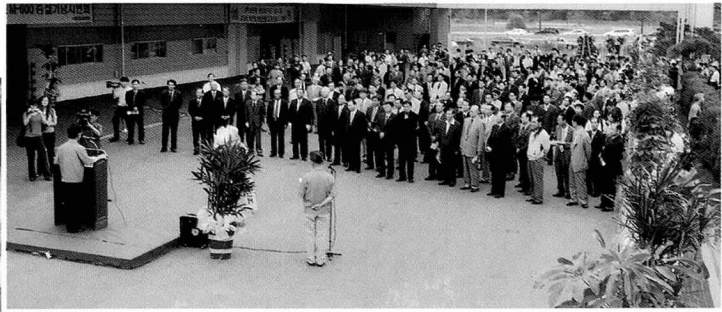
비오는 날 상하차 작업을 위해 50m 길이의 기둥없는 캐노피를 설치하고 2층 중앙에 환기와 채광을 고려한 정원을 설치, 쾌적한 사무환경을 조성했다.

보진재는 현재 ▶4×6반절 8색, 하이텔 M-600 운전기 등 4대 ▶대국전 5색기, 4색기, 2/2도 양면전용기 등 8대 ▶무선철 2 라인 ▶중철 2 라인 ▶완벽한 맥=매킨토시 전산 조판시스템 ▶필름 출력기 및 컬러 레이저 프린터 ▶드림스캐너 및 평판 스캐너 등 기획에서 인쇄 제작에 이르는 전공정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새로 도입한 최신 하이텔 M-600 운전기와 고모리 양면 전용매엽인쇄기



◆ 김준기 회장이 업계 대표 및 원로들과 회담을 나누고 있다.



◆ 이날 기념식에는 각계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으며<사진 상> 신공장 준공과 함께 도입한 하이텔베르크 M600윤전기 및 고모리 양면매엽인쇄기 가동식도 큰 관심을 모았다. <사진 좌>

등 새로운 인쇄기 시연회도 가졌다.

하이텔M-600 윤전기는 세계 최고의 인쇄품질을 자랑하는 최신 상업용 윤전기로서 시간당 40,000의 인쇄속도와 자동 편 맞춤 장치, 자동 세척 장치 등을 갖추고 있다. 4×6배판/8절 책자 및 8절/4절/2절 전단 등을 주로 생산하며 4×6배판형으로는 한국에 처음 도입되는 독일 하이텔베르크사의 M-60 기종이다.

이 윤전기는 길이 7.6m의 잉크 건조장치를 사용함으로 인쇄물이 트지 않고 잉크 농도를 최대한 높일 수 있어 매엽 인쇄물보다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며 인쇄실린더가 인라인 특수배열 방식으로 되어 있어 진동과 소음을 줄여줌으로써 고속 회전시에도 높은 인쇄품질을 유지한다.

위와 아래에 인쇄통이 위치한 양면 매엽인쇄기 고모리 L-240SP는 한국 최초로 도입된 것으로 중간에 뒤집는 양면기와 달리 처음부터 끝까지 한쪽만 물고 인쇄함으로써 인쇄면적이 10mm 가량 더 커서 견출이 있는 인쇄물에 매우 유리하다. 내장된 잉크 롤러 냉각장치가 잉크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여 줌으로써 계절에 관계없이 잉크 농도를 정밀하게 제어할 수 있다. 반자동판결이 장치, 용지사이즈 사전설정 장치, 자동세척 장치 등 자동화 옵션을 모두 갖

춘 최신형 인쇄기로 생산성이 뛰어난 특징을 지니고 있다.

### 90주년 행사스케치

8월 14일 오후 4시부터 열린 창립 90주년 및 파주신공장 준공 기념행사에는 이준원파주시장과 민재기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광득룡인쇄연합회회장, 박충일인쇄연구소이사장, 정진숙을류문화사회장, 이기웅출판단지이사장, 허철중인협명예회장, 이일수평화당인쇄(주)회장, 고수곤서울인쇄조합이사장, 박용기파주인쇄공단이사장 등 내빈과 인쇄 출판계 인사 500여명이 참석해 보진재의 새출발을 축하했다.

이날 김정선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90년의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인쇄출판계와 관련 업계 여러분의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하고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변화를 위해 이곳으로 이전하였으며 앞으로도 최고의 인쇄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사장은 이어 “신공장 건설에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고객만족과 품질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유창준국장>